

택배노조 “차량 출입 금지는 아파트 ‘갑질’... 개별 배송 중단”

“개별 배송 불가 아파트로 지정... 입구까지만 배송”

“안전 대책 추가 마련하는 식으로 문제 해결해야”

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금지하자 택배 기사들이 개별 배송을 중단하겠다고 8일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는 이날 강동구 아파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조치와 요구사항은 결과적으로 택배 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갑질”이라며 “해당 아파트를 개인별 배

송 불가 아파트로 지정하고 4월14일부터 아파트 입구까지 배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아파트 입구에 물건을 적재하고 찾아오는 고객에게 물품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갑질에 맞선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 1일부터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지상 도로의 차량 통행

을 전면 금지하면서 택배 기사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아파트 측은 택배 기사들에게 지하 주차장 출입이 가능한 저상차량을 이용하거나 손수레 등으로 물품을 각 세대로 배송하라고 통보했는데, 택배 기사들이 정문 근처에 물량을 두고 가면서 택배 물품이 방치되는 사태도 발생했다.

택배노조는 “해당 아파트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줬다고 말하지만 택배 노동자와의 어떠한 사전 논의도 없었다”며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전형적인 갑질 행위”라고 규탄했다. 노조는 “아파트의 갑질로 인해 택배 노동자는 노동강도와 노동시간

이 매우 증가했다”며 “손수레 이용으로 아파트 배송에 걸리는 시간이 기존보다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로를 더욱 유발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상탑차로 개조하거나 교체하는 비용도 모두 택배 노동자 개인의 몫”이라며 “(차량 교체 시) 실을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들게 돼 택배터미널에서 물건을 싣고 배송지역으로 오는 일을 추가로 하게 돼 노동시간과 강도가 증가하게 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출입을 허용하고 안전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이슬기자



택배차량이 아파트 단지 진입을 못해 발생한 '택배 대란' 현장인 서울 강동구 고덕동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후문에 5일 오후 지상주차통계 안내문만 설치되어 있다.



'지진 체험하는 어린이들' 8일 오전 대구 달서구 대구유아교육진흥원 안전체험관을 찾은 유치원생들이 지진 안전체험을 하고 있다. 화재대피·자동차안전·지진 안전·승강기안전·보행안전·생명존중 등 6개 체험장으로 이뤄진 안전체험관은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해 오전·오후 2회(1회 100명 이내) 운영한다.

순천 코로나19 확산세 주춤... “안심은 금물” 방역 고삐

8일 오전 의원·의료기기판매장발 1명 추가 시방역당국, 전날 감염원 불명 2명이 '걱정'

전남 순천시 조곡동 외과의원과 의료기기 판매장을 방문한 70~80대 고령층의 코로나19 확진이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8일 오전 1명 발생에 그쳐 다소 주춤 추세다.

순천시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시민들의 협조로 집단감염 확산이 줄어든 것으로 보면서도,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판단에 방역의 고삐를 죄고 있다.

순천시에 따르면 8일 오전 조곡동 의료기관 관련 확진자 1명(순천278번·전남 946번)이 추가로 발생해 지난 4일 이후 모두 25명이 확진됐다.

이 중 2명은 의원 및 의료기기판매장과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는 감염원 불상인역학조사에 나선 방역 당국의 진땀을 빼고 있다.

순천 278번 환자는 최근 의원을 방문했으며, 집단감염 발생에 따른 방문자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진됐다.

순천시는 7일까지 1688건의 검체를 채취했으며, 밀접접촉자 158명을 자가격리시켰다. 현재 총 자가격리자는 836명이다.

순천시는 지난해 8월과 11월 집단감염 발생 및 마을 코호트 격리과정에 서 전 도시를 쫓잡는 강수를 두

면서 코로나19를 극복해 왔다.

하루 건너 한두 명 꼴로 발생하던 코로나19 발생은 한동안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고 잦아드는 듯했으나 4월 초 조곡동 외과의원과 인근의 의료기기 판매장에서 무더기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긴장을 고조시켰다.

의원과 의료기기 판매장은 특성상 방문자의 연령대가 고령층이라는 점과 70대와 80대의 감염자가 많은 점에서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기에 방역 당국의 긴장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다. 더구나 순천역에서 아랫장까지 사이의 버스정류장을 기준으로 병·의원을 방문해 물리치료를 받는 고령층 유동인구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추가 확산 가능성이 늘 열려있다.

순천=김승호기자

퇴직 공무원 투기 의혹...광주시·구청 등 압수수색

발주 공사 내부 정보 이용 역대 투기·부패방지법·알선수재 혐의

광주경찰이 퇴직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밝히기 위해 관공서 3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는 구청 퇴직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서구청·광산구청 등 6곳에 경찰관들

을 보내 8일 오후 1시 30분부터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경찰은 관공서 발주 공사 인허가 관련 서류와 디지털 자료 등을 두루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직 구청 간부 공무원과 시민 등 2명이 광주시청에서 발주한 공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수십 억대의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이를 공모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부패방지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최윤희기자

남편과 바람 피운 여성에 손해소 제기, 위자료 지급 판결

법원이 자신의 전남편과 바람을 피운 여성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하자 불안감을 주는 문자를 반복해서 보낸 40대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형(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휴대전화 3대로 15차례에 걸쳐 B씨에게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했다. 전 남편과 바람을 피운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위자료 15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

이후 B씨가 위자료를 주지 않자 '상간녀 B씨, 골프질 돈 있으면 손해배상

금 입금하세요. 각오하고 유부남 만났을 텐데 너무 질질 끄네'라는 내용 등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B씨가 불륜으로 인한 확정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A씨가 문자를 보내게 된 점, 문자 내용 일부가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지만 주된 내용이 손해배상금 지급 독촉인 점, A씨가 전 배우자의 불륜과 이혼으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서선옥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